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108호 1판 (음력 9월 13일)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은빛 가을 … 영산강변 억새 물결 10일 오후 광주시 서구 서창교 인근 영산강변에서 시민들이 억새 길을 따라 거닐고 있다. 영산강 극락교~서창교 일대에서는 11일부터 12일까지 제5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가 진행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아시아를 노래하다

‘아시아문화주간’ 행사 17~29일 문화전당 일대에서 열려
국제회의·포럼·심포지엄·공연·전시 등 다양하게 펼쳐져
한-아세안문화장관회의 10개국 참여 공동성명 채택 예정

우리나라 아시아 외교의 핵심가치인 ‘사람·평화·상생·번영’을 아시아 문화적 이해와 연대를 통해 구현하는 협력의 장이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 정신과도 상통하는 아시아 외교의 핵심가치는 향후 아시아중심도시로서 광주를 한 단계 도약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문화협력을 통한 아시아 공동체의 상생과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아시아문화주간’ 팡파르가 오는 17~2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 울려 퍼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이 ‘아시아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아시아문화주간은 아시아 각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만남과 축제의 장이다. 행사 기간에는 국제회의와 포럼, 심포지엄, 다양한 공연 및 전시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아시아문화주간은 내달 25일과 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전초전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국내외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아젠다를 가늠할 수 있어서다. 또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이에 앞서 열리는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 신설, 설계 업체 선정 완료 등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시점과 맞물려 이번 아시아문화주간은 그 자체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를 내린다. 동아시아 주변국인 중국의 중화주의와 일본의 제국주의 관점을 뛰어넘는 민주와 평화에 기반한 광주의 정신을 토대로 아시아의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화전당은 문화주간의 대표행사인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를 차용해 협력과 번영, 축제를 상징하는 이미지(‘노래하다’)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ACC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문화장관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문화부 장관이 참여해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교류, 협력 등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ACC-주한아시아대사관 협력회의에는 한국에 상주하는 15개 아시아 국가 대사관 소속 20여명의 문화담당관들이 참석해 ACC와 대사관, 본국 문화예술기관 사이의 협력을 논의한다.

아시아전통음악위원회와 아시아문용위원회의 연례회의도 25일과 27일 각각 열린다. 회의 결과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제작하는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와 아시아무용단 콘텐츠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전당은 지난 10여 년 동안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국가들과 공연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해왔다.

또한 작가와 학자, 예술가, 문화예술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문화포럼’(18~19일), 광주를 포함한 아시아-유럽 15개 도시가 참여해 창의산업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아시아유럽 창의혁신도시 연대 시장회의’(28~29일), 아시아문학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아시아문학포럼’(18~19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한-아세안 문화관광포럼’(23일) 등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아시아컬처마켓 & 디자인랩’ 등 시민참여 행사 4개, ‘시간을 칠하는 사람’ 등 공연 7개, ‘인도영화제’ 등 전시 및 영화제 10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한편 이번 아시아문화주간은 ACC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며 아시아 10여개 국가의 주한대사관, 한국관광공사, 한-아세안센터,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광주문화재단 등 국내외 20여 기관이 참여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구 지표 최악 … 전남, 소멸 ‘비상’

10만 명 당 사망 917.3명 … 전국 평균의 1.6배
노인 비율 22.4%·소멸위험지수 0.47 전국 최고

농·어촌 인구가 줄어 고령화·공동화 되면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전남의 취약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전남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남지역의 취약한 인구 지표를 제시했다.

우선, 전남지역 인구는 228만명(1992년)에서 188만명(2018년)까지 추락했다. 인구가 줄면서 고령화된 지표도 여실히 확인됐다. 전남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2.4%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다. 고흥(39.5%)을 비롯한 12개 시·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30%를 넘는다.

고령화로 인한 사망률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남은 최근 3년간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917.3명(2018년)으로 전국 평균(582.5명)보다 1.6배 높았다. 가장 낮은 세종(425.3)보다는 2.2배나 차이가 났다.

이러다보니 인구학적 쇠퇴위험 단계 진입을 나타내는 소멸위험지수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47이었다. 지방소멸지수가 0.50 이하일 경우,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도시는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나마 22개 시·군 중 무안·나주·여수·목포·순천·광양 등 6곳을 제외한 16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된 바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남지역 평균 재정자립도는 25.7%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자치단체도 16곳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다”면서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는 계속 1위만 하는데 내용적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지역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 맞춤형 인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노벨문학상 수상자 2019년 한트케 2018년 토카르추크

올해·지난해 동시 선정

페트 한트케

올가 토카르추크

2018년, 201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각각 폴란드 여성 작가 올카 토카르추크, 오스트리아 작가 페트 한트케가 선정됐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한국 시간 오후 8시)은 토카르추크와 한트케를 각각 2018년과 201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노벨문학상의 최대 관심사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여성 작가가 수상할지 여부였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예측하는 영국 도박사이트 ‘나이서오즈’에는 캐나다 시인 앤 카슨, 프랑스 소설가 마리즈 콩데, 폴란드 소설가 올가 토카르추크, 중국 소설가 찬쉐 등 여성 작가들의 수상자 배당률 상위 1~4위에 올린 바 있다.

노벨문학상 공동 수상은 1974년 에이빈 욘손과 하리 마르틴손 이후 45년 만이다. 지난해 ‘미투’ 논란으로 문학상을 수여 하지 못한 한림원은 올해 2018년과 2019년 수상자를 동시에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두 명의 수상자가 선정되는 것은 지난 1974년 이후 45년 만이다.

그동안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 한림원은 발표 직전까지 모든 과정을 비밀에 부쳤다. 그로 인해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는 외부 도박사이트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는 정도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